



광주도시공사, 시무식·신입사원 임용식 진행

광주도시공사는 2일 시무식을 갖고 주요 사업 방향과 계획을 담은 신년사를 통해 '미래 가치를 높이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을 선포했다. (사진)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2025년 경영목표와 2030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경영원칙으로 '시민감동', '소통협력', '혁신성장', '투명공정' 네 가지의 핵심가치를 제시했다. 공사는 시민중심 서비스 제공, 자유로운 소통, 창의적 아이디어, 원칙과 신뢰에 기반한 업무 수행으로 머물고픈, 함께 하고픈 광주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무식에서는 신입사원 8명의 임용식도 함께 진행됐다.

임용식에서는 신입사원들이 선서를 통해 공사의 일원으로서 첫 발을 내딛었으며, 이후 공사 직원으로서 각오를 말하며 패기와 열정을 보여줬다.

노병하 기자



광주기독병원, 심뇌혈관질환 구급 경연 3위

광주기독병원이 최근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열린 '2024년 심뇌혈관질환 구급 경연 한마당'에서 퀴즈왕 부문 3위를 차지했다. (사진)

2일 광주기독병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남대학교병원, 광주·전남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공동 주최 및 주관했으며,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전남 지역 119 구급대원 및 의료인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에는 광주·전남 119 구급대원 60명과 네트워크 의료기관 소속 40명이 참여해 심뇌혈관질환 관련 40문제를 다룬 퀴즈 경합을 펼쳤다. 이날 대회에서 광주기독병원 공공보건 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의 중증응급이송 전문 및 진료 협력 사업 담당자인 이시은 간호사는 퀴즈왕 부문에서 3위를 기록하며 병원의 응급 의료 역량을 증명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이스포츠교육원 '청소년 이스포츠 대회'

광주이스포츠교육원은 지난달 2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특설무대에서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16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청소년 이스포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사진)

브롤스타즈 종목으로 겨룬 이번 대회에서는 치열한 접전 끝에 고려중학교의 '고라파덕' 팀이 탁월한 전략과 팀워크로 우승을, 문산중학교의 'esp' 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대회 현장은 교사, 학생 등이 열띤 응원이 펼쳐지면서 시종일관 뜨거웠다. 이날 대회는 광주이스포츠교육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라이브로 송출돼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관객들도 생생하게 경기를 시청할 수 있었다.

우승을 차지한 고려중학교 학생은 "이 경험은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동환 기자



김석웅 광산구 부구청장, 취임식 없이 집무

광주 광산구는 2일 김석웅 신임 부구청장(부이사관)이 취임식 없이 집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진)

김 부구청장은 제9회 지방고등고시 출신으로 2004년 공직에 입문, 광주시청 국제교류담당관, 정책기획관, 자치행정국장, 통합공항교통국장 등 중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최근까지 통합공항교통국장을 역임하면서 군공항 이전 광주·전남 공동발표를 끌어내고 민·군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 대책 토론회, 적극적인 홍보전을 추진하며 상생 분위기 조성, 인식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 김 부구청장은 이날 국가 애도 기간에 따라 취임식을 생략하고, 업무에 들어갔다.

김 부구청장은 "시민을 주인으로 세우며 광주 발전과 대한민국 혁신을 견인하는 민선 8기 광산구정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공직자가 원팀으로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성철 기자



화순전남대병원, 희귀질환 완치 환아에 메달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 병원 여미홀에서 제24회 소아암·백혈병 희귀질환 완치잔치를 개최했다. (사진)

1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소아청소년과 백희조 과장과 국훈 교수 등 의료진들과 성명석 화순전남대병원 사무국장, 조영래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주 (사)기부천사 대표 등 참석자들은 소아암과 백혈병, 희귀질환을 이겨낸 24명의 환아에게 일일이 완치 메달을 걸어줬다. 힐링 음악회에 이어 환아들의 장기자랑도 이어졌다.

완치잔치는 화순교육지원청에서 환아들을 대상으로 주최한 백일장 시상과 행운권 추첨을 통해 축하선물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이날 지역돌보미 기부천사와 사랑을 맺는 해피트리에서는 각각 100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함께 축하했다. 또 환아의 완치사례담과 부모의 사례담을 듣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노병하 기자



오미섭 의원 '대한민국 청소년희망대상'

오미섭 광주 서구의회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한국청소년재단 시상식에서 '청소년희망대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사진)

한국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의 삶과 밀접한 정책의제 발굴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친 선출직 의원과 단체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희망대상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청소년희망대상은 1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청소년 1000인 온라인 투표'를 진행,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올해는 139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오 의원은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오 의원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그들의 안정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 최초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정상아 기자

밝은안과21병원, 박범찬 신임 원장 취임

밝은안과21병원은 2일 박범찬(사진) 원장이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박 신임 원장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사,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최고안과 원장, 조선대병원 망막 임상교수를 역임했다. 박 신임 원장은 망막, 포도막, 백내장 분야의 전문의로서 심도 있는 학술 및 연구 활동을 통해 국내 망막 발전에 기여해왔다.

특히 박 신임 원장은 한국망막학회 학술지에 '망막정맥폐쇄에서 단핵구와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공동연구 박범찬, 차유완, 김성택)' 논문을 발표하며, 2023 한국망막학회 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 논문을 통해 단핵구와 고밀도 지



단백 콜레스테롤의 비율(MHR)이 망막 분지정맥폐쇄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생리적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밝혀 뛰어난 임상 역량과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박 신임 원장은 취임 인사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을 대표하는 안과전문병원인 밝은안과21병원에 함께하게 돼 기쁘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환자들의 눈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환자들에게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노병하 기자

광주 119특수대응단장에 김종률 소방장 취임

광주시119특수대응단은 제9대 단장으로 김종률(사진) 소방장이 지난 1일 취임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신임 단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취임식 없이 집무를 시작했다.

장흥 출생인 김 단장은 1990년 소방사 공채로 입문해 광주소방안전본부 안전보건팀장, 소방감찰팀장, 방호예방과장, 남부소방서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소방행정 전반에



결정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탁월한 업무처리 능력을 발휘해 광주소방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신임 단장은 "다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사고 전문기관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노병하 기자

광주 남부소방, 제15대 박충훈 신임서장 취임

광주 남부소방은 지난 1일 제15대 박충훈(사진) 신임서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9년 임용된 박 서장은 광주 서부소방 소방행정과장, 광주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 상황분석팀장과 예산장비과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했다.

특히 동료 상호간 소통과 배려로 계층·세대 간 조직문화 개선에 힘써 왔으며, 신속하고 안전한 현장활동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등 광주의 소



방력 발전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충훈 남부소방서장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방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시민과 소통하는 책임 소방행정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준명 기자

박인규 전남대 연구팀, mRNA 백신 전달 시스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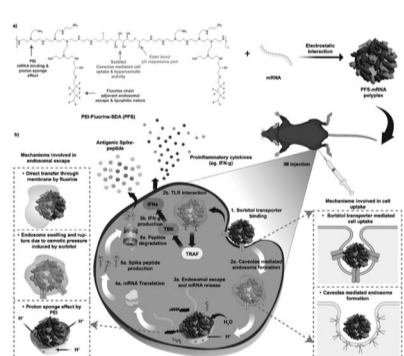
세포 흡수와 엔도솜 탈출 개선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과학고실 박인규 교수 연구팀이 mRNA 백신 전달 시스템을 개발했다. (사진)

지난 1일 전남대에 따르면 박인규 교수 연구팀은 국립보건연구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연구팀과 함께 혁신적인 mRNA 백신 전달 시스템을 개발해 COVID-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냈다.

이번 연구는 기존 폴리에틸렌이민(PEI)을 기반으로 한 나노입자에 플루오린화 소르비톨을 적용해 세포 내 흡수와 엔도솜 탈출을 크게 향상시킨 결과를 발표했다. 이 기술은 기존의 지질 나노입자(LNP) 기반 백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연구팀이 개발한 플루오린화-소르비톨 폴리플렉스(PFS)는 세포 표면의 소르비톨 통로와 케비올라 매개 세포 내 이동을 통해 mRNA 백신의 세포 흡수를 개선하며, 플루오린화를 통해 엔도솜 탈출 효율을 높이고 독성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SARS-CoV-2 스파이크 단백질 mRNA 백신이 발현되며 강력한 면역반응을 유도하는데 성공했다.

박인규 교수는 "이번 연구는 mRNA 전달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개선한 획기적인 기술로, 전달 mRNA 유전자의 장기간 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감염병과 종양 등 비감염병에 대한 백신 개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며 "이 기술은 산업적 가치가 우수하여 교원창업벤처인 ㈜디알큐어를 통해서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동환 기자